

전주국제영화제, 국제경쟁 선정작 공개

극영화 8편 · 다큐멘터리 2편 총 10편 본선 진출작 선정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국제경쟁 부문 선정작 10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의 국제경쟁 부문은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장편영화를 연출한 감독들의 작품 중에서 아시아 최초로 상영되는 작품을 엄선해 소개하는 섹션이다. 지난해 11월 8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공모를 통해 81개국 총 747편을 접수, 예심을 거쳐 총 10편의 본선 진출작을 선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극영화 8편 중 프랑스의 배우이자 감독인 장 밥티스트 뒤랑의 장편 데뷔작 <스레기지의 개>는 친구를 개(도그)라 부르는 미랄레스와 도그, 두 소년의 우정과 성장을 그린 작품이다. 작년 <월드시네마> 세션에서 소개된 <트렌케 리우켄>(2022)의 프로듀서인 아르헨티나의 잉그리드 포코로프의 장편 데뷔작인 <베이지 톤으로>는 어린 시절 사고로 팔에 금속편을 달게 된 14살 소녀 아나의 겨울철 환상적인 성장을 보여줄 예정이다.

기후활동가이자 트럼펫에 재능이 있는 18살 소녀 트리네의 성장을 그린 <연습>은 노르웨이의 로렌스 페를 감독의 데뷔작으로 외판 로포

텐 제도에서 1,500km가 넘는 거리가 떨어진 수도 오슬로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히치하이킹으로만 가는 무모한 여정을 선보인다. 촬영감독 출신인 싱가포르의 손 네오 감독의 데뷔작인 <끝없는 기다림의 날들>은 외면해 왔던 과거의 삶을 마주하는 미스에를 연기하는 반자이 미스에 배우의 매력적인 연기로 전주국제영화제만의 특별한 영화적 재미를 선사한다.

성장 영화 외에도 국제경쟁 부문 선정작들은 다양한 이야기로 눈길을 끈다. <몬바스: 최후의 결전>(2019)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 출신의 이반 탐첸코 감독의 두 번째 장편 <양심수 무스타파>는 1980년, 구소련 체제에서 탄압받고 차별받으며 정치범이 되어 고향에 가지 못했던 크림반도 출신 타타르인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필립 소트니첸코 감독의 장편 데뷔작 <팔라시아다>는 1996년 우크라이나의 사형제도 폐지 5개월 전, 한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 와 법의학 정신과 의사의 이야기로 국가의 폭력에서 보이는 어둠성과 두 조사관의 일상에 가득한 소외감을 다큐멘터리와 같은 영상물 통해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베트남 팜응옥란 감독의 데뷔작인 <콜리는 울지 않는다>의 경우 노동자 수출로 동북에서

일했던 은퇴 근로자 레이디 M이 겪게 되는 답답한 여름날을 흑백화면과 시적인 연출로 몰입감을 배가한다. 스페인 라우라 페레스 감독의 데뷔작인 <불편한 이미지는>는 한밤중에 아기를 버리는 십대 소녀 안토니아의 이야기를 친숙한 멜로드라마와 영화적 언어의 탐구를 결합해 독특한 상상력을 선보인다.

끝으로 선정작 중 다큐멘터리는 2편으로, 대만의 퀴안 감독의 장편 데뷔작 <눈이 녹은 후>는 네팔로 트래킹을 떠났다 조난으로 세상을 떠난 친구 천과의 약속을 위해 퀴안 감독이 네팔로 떠나 천의 흔적을 따라 걸으며 친구와의 추억을 곱씹고, 관객에게는 두 사람의 여정이 겹쳐보일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헝가리의 두 젊은 감독 발린트 레베스와 다비드 미콜란의 <거리의 소년 사니>는 길거리 캐스팅으로 섭외한 8살 소년 사니의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기록한 다큐멘터리로 천방지축의 소년이자 친구를 사귀고, 사고로 사람을 죽여 법정에서 기까지 소년의 성장을 감명하게 담은 영화다.

예시 심사에는 반야 밀레나 플린 파이바(Vanja Milena Munjin PAIVA), 콜라비아 디마(Flavia DIMA), 문석, 문성경, 전진수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가 참여했다.

한편,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5월 1~10일 열흘간 전주 영화의거리 일대에서 개최된다. /장은성 기자



베트남 여행사 대표들이 태권도원 팜투어에서 태권도 체험을 하고 있다.

태권도원 찾는 외국인 스포츠 관광객 ↑

관광객 유치 최선... 호주 · 프랑스 · 미국 태권도 수련생 방문

호주와 프랑스·미국 태권도 수련생들이 태권도원에서 수련 및 체험을 하고 있고 5월부터는 베트남 스포츠 관광단이 방문하는 등 태권도원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 스포츠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다.

10일 태권도원을 찾은 호주를 시작으로 프랑스와 미국에서 온 수련생들이 품새와 자기방어, 태권도 기본자세, 발차기, 격파 등의 수련과 함께 힐링태권체조, 태권힐링테라피, 태권북, 전통무예수련 등 태권도원만의 고유 프로그램에 참가 중이다.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외국에서 오는 단체별로 전담 매니저를 비롯해 수련 지도자 역시 예약 단계에서 지정을 하는 등 단체별 수준과 성격, 수련 내용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외국 수련생들은 밤과 새벽 시간을 활용해 태권도원 구석구석을 산책하고 전통무예수련장 및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헌액공간을 견학하는 등 자유 시간을 즐기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이러한 수련생들의

행동 패턴에 맞춰 보안 순찰과 아이 조령점 등 안전한 태권도원 수련 일정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태권도진흥재단은 외국에서 오는 스포츠 관광객 유치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태권도원 방문객이 5월부터 매주 1~2팀 태권도원을 찾는다. 이들은 태권도 수련 경험이 없는 일반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기본자세 수련과 국립태권도박물관 견학, 상설공연 관람 등 태권도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된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올해 말까지 베트남에서만 2천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해외에서 오는 스포츠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한류 원조 격인 태권도를 활용해 더 많은 외국인들이 태권도원을 찾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안정적 운영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주·전문선 기자

유지태 · 김새벽 등 경쟁부문 본심 · 넷팩상 심사위원 14인 공개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감독 · 배우 · 영화평론가 · 프로그래머 · 교수 등 구성

오는 5월 1일 개막을 앞둔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감독, 배우, 영화평론가, 프로그래머 등 국내외 유수의 영화인들로 구성된 경쟁부문 및 넷팩(NETPAC)상 심사위원 총 14인을 선정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국제경쟁 부문 심사위원에는 해외 영화인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캐나다 토론토를 중심으로 픽션부터 실험영화까지 광범위하게 작업하는 작가이자 배우로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폐막작 <맛과 마리아>의 주연인 배우 데라 캄벨, 2024 베를린국제영화제 인카운터 섹션에서 <너는 나를 불태워>(2024)를 올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출신 마티아스 피네티로 감독, 고전 영화의 기법부터 다큐멘터리와 실험영화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영화의 계보를 반영하며 성과 인간의 욕망을 탐구한 작품으로 칸, 베니스, 로카르노, 토론토, 베를린 등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수상해 국제적인 명성을 쌓은 포르투갈의 주앙 페드로 호드리게스 감독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한다.

국내 영화인으로는 <봄날은 간다>(2001), <울드보이>(2003), <황진이>(2007), <사바하>(2018), <둔>(2018)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비롯 최근에는 OTT 시리즈물 <종의 집: 공동경계구

역>(2022), <비질란테>(2023) 등에도 출연, 건국대학교 영상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 겸 교수 유지태와 영화 <기린>(2009)으로 데뷔한 후 <무서운 이야기>(2012), <결혼전야>(2013),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2016), <새해전야>(2020)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선보인 폭넓은 연출로 누구나 당연하다고 여긴 생각이나 평범한 일상이서 발견한 이면의 감정들을 때로는 발칙하게 때로는 감성적으로 담아내는 홍지영 감독이 이름을 올렸다. 국제경쟁 부문 심사위원 5인은 전 세계 신인 감독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장편 연출작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한국경쟁 부문 심사위원으로는 1995년부터 한국 최고 영화전문매체 <씨네 21>에서 기자 생활을 해왔고 <영화를 멈추다>(2008), <묘사하는 마음>(2022), <나를 보는 당신을 바라보았다>(2022) 등 영화 관련 저서를 저술한 <씨네 21> 김혜리 편집위원, 2002년부터 토론토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로 활동하며 중국, 홍콩, 일본, 한국 등에서 아시아 최신작과 영화감독을 발굴하고 지난 20년간 로테르담국제영화제, 토리노국제영화제 등 다양한 영화제와 기관에서 자문위원 및 수임 담당자로 활동한 토론토국

제영화제 선임프로그래머 지오바나 풀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문화 활동 중인 무비 이미지 큐레이터이자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아시아필름아카이브의 프로그래머 및 대외협력 담당자로 재직하던 싱가포르국제영화제의 프로그래머 디렉터 토크이위가 참여한다.

넷팩(NETPAC)상 심사에도 3인의 심사위원이 참여한다. 태국단편영화페스티벌의 창립 멤버로 1997년부터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아시아 다큐멘터리네트워크(AND)의 선정 위원 등으로 활발히 활동한 현 태국필름아카이브 원장 찰리다 우아롬람짓, 장편 다큐멘터리 <자화상>(2003), <피아골에 다시 서다>(2009)의 각본 및 연출, 장편 극영화 <패밀리마트>(2009), <숨>(2009), <인어전설>(2016), 장편 다큐멘터리 <지식>(2022) 등의 각본으로 참여하고 전북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역임한 미래영화연구소 소장 전병원, 평론집 <소설의 고독>(2008), <흔들리는 사이 언뜻 보이는 푸른빛>(2014), <가벼워진 것들을 향한 사랑>(2023), 산문집 <마음을 건다>(2017), <서로의 등을 바라보며>(2023)를 출간하고 대산문학상을 수상한 도서출판 강사의 대표이자 비평가 정홍수이다.

한편 14인의 심사위원이 선정한 수상작은 5월 7일 진행되는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시상식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신관사도 부임 행사 공연 매주 토요일 열린다

남원시는 시민참여형 대표 문화공연인 신관사도 부임행사를 매주 토요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관 사도 부임 행사 상설 공연은 2007년부터 17년 동안 시민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대표 문화관광 상설 프로그램으로, 남원 시민의 감성적 출발하여 관광부원을 거쳐 돌아오는 거리 퍼레이드형 공연이다.

퍼레이드는 남원의 대표 문화관광 콘텐츠 소재인 '판소리 춘향전'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코믹스럽고 해학적인 요소를 가미해 만든 창작 공연으로 공연부원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하였으며, 공연은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혹서기 7~8월을 제외하고 매주 토요일 2시 공연부원을 방문하면 공연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전통문화 세계화 발판 마련

프랑스 파리 · 영국 런던 방문 전통문화교류 나서

한국전통문화전당이 한지, 한복, 놀이를 국외에 알리는 전통문화교류 통해 전통문화진흥기관으로서의 일정을 소화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이하 전당)은 지난 3~10일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을 방문, △세종학당재단의 유럽거점과의 전통문화교류 △국제한지산업대전 △한복모델선발대회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일일 등 전통문화를 알렸다고 밝혔다.

전당에 따르면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의 해외거점인 파리와 런던 세종학당을 통해 학생 및 현지인 모두 100여 명을 모집, △한복 기증식 △전통놀이 △한지공예체험 △한복입기체험 등 한국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한복모델선발대회 우승자들과 함께 파리와 런던 등 주요 명소에서 한복을 입고 거리를 거닐며 한복의 아름다움을 선보였다.

한편 이번 세종학당재단 유럽거점인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 학당과의 전통문화교류는 지난 2월 28일 재단과 전당의 전통문화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 이후 첫 협력기반 교류로, 향후 각 해외거점 세종학당을 통해 전통문화를 알리는 등 다양한 협력관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도영 원장은 "우리의 전통문화는 K-콘텐츠로써 경제적 가치가 있는 미래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전 세계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속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고창 칠암리 용산고분 원경

'고창 칠암리 용산고분' 도기념물 된다

전북자치도 기념물 지정예고... 전북서 유일하게 확인된 마한~백제시대 중요 고분

고창군(군수 심덕섭)은 '고창 칠암리 용산고분'이 지난달 25일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1분과) 지정 검토 심의를 통해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 지정유산인 기념물로 지난 12일 지정예고됐다고 밝혔다.

'고창 칠암리 용산고분'은 전방후원형(前方後圓形) 고분으로, 앞쪽은 네모난 방형이고 뒤쪽은 동그란 원형의 무덤 형태가 결합한 독특한 무덤이다. 이러한 형태의 고분은 우리나라 서남부지역(영산강유역)에 주로 분포하며,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유일하게 확인된 고분이다.

'고창 칠암리 용산고분'은 한반도 전방후원형 고분(총 12개유적 15기 정도)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축조됐고, 최북단에 자리하면서 3기 정도가 조성되어 최대밀집도를 보인다.

또한 입지에 있어도 비교적 높은 구릉 능선에 위치하며, 수혈식(竪穴式) 돌방무덤 형태 등 영산강유역과도 차이를 보여 우리나라 전방후원형 고분의 성격과 출현 시기 및 축조집단의 성격 등 마한~백제문화 연구와 복원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고창 칠암리 용산고분'은 2000년 고창의 분구묘 조사를 통해 처음 알려진 후, 규모와 구조는 고분 축조조사(2010년)와 노출된 매장시설 및 일부 분구에 대한 학술조사(2015년)를 통해 밝혀졌다.

1호분의 규모는 전체 길이 56m, 원부 직경 32.8m, 원부 높이 6.6m, 방부 너비 34.9m, 방부 높이 4.6m 정도로, 세 번째 크기이다. 또한 원형의 분구를 둘러싼 이중의 주구(周溝)와 주제(周堤)의 흔적은 국내 유일할 사례이고, 4차례 정도로 쌓아 올린 분구(墳丘)에서 돌을 열지어 깔아 놓은 층석(層石)과 원형토기를 세워 배치한 모습도 확인됐다.

또한 당시 조사에서는 그릇받침과 뚜껑토기, 철낫 및 마구(馬具) 부속품인 말따꾸미개, 금박유리제 등 약 60여점의 다양한 종류의 유물이 출토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칠암리 용산고분은 고창 봉덕리 고분군(사적) 등과 함께 마한·백제 문화의 특징과 당시 대외관계 등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지, 우리 고창이 마한·백제 문화의 중심지였음을 인정받은 것으로, 그동안 잠정적으로 추진해 온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과 보존·활용 방안 등을 더욱 충실하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